

박찬욱 감독 아가씨, “기괴하고 아름답다”

칸 영화제 취재 내외신 “영화적 요소 매혹적” 평가

“무조건 아름다워야 해” 박찬욱(58) 감독의 북스 3부작 마지막 영화인 친절한 금자씨(2005) 속 대사다. 이 대사는 박 감독이 작품을 내놓을 때마다 그의 영화를 설명하는 키워드로 항상 따라다닌다.

제69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박 감독의 신작 '아가씨'도 그랬다. 이 작품은 한 마디로 아름다웠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이 작품에 대한 내외신의 평가는 대체로 일치했다. “기괴하고 아름답다”



제69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박 감독의 신작 '아가씨'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루미에르 대극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러한 평가는 단순히 박 감독 특유의 미장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평단은 코미디와 에로타시즘을 유려하게 오가는 연출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성격의 인물들이 빚어내는 미묘한 미학,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해내는 우아한 플롯 진행 방식 등 '아가씨'의 영화적 요소 대부분을 매혹적이라고 평했다.

영화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은 귀족 아가씨와 아가씨의 재산을 노리고 그에게 접근한 백작, 백작에게 거래를 제안받고 아가씨에게 접근하는 허녀, 그리고 아가씨의 후견인 등의 얽히고설킨 관계와 파국을 그리는 작품이다.

박 감독은 '아가씨'를 “죄의식과 사람이 서로 반영하며 무한히 증식하는 이야기”라

고 설명했다. 그는 “서로를 속고 속이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느끼는 죄의식, 거울을 보듯 나의 모습을 다른 이에게서 보았을 때의 감정적 딜레마, 그리고 사람이 '아가씨'”라고 설명했다.

이 작품은 영국 작가 사라 워터스의 소설 '핑거 스미스가 원작이다. 원작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를 배경으로 소매치기 집단에서 자란 소녀가 소매치기의 우두머리와 귀족 상속녀를 결혼시키기 위해 상

속녀에게 접근하면서 벌어지는 내용을 그린다.

박 감독은 이 이야기를 1930년대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으로 옮겨와 자신만의 스타일로 각색했다.

박찬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미장센이다. 세계 어떤 감독과도 유사점이 없는 독특한 그의 회화적 감각은 '아가씨'에서도 빛난다. 박 감독은 조선과 일본, 서구 문화의 이질성을 적극 드러내면서도

이것들을 한 화면에 조화롭게 담아내는 능력으로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박 감독은 이런 부분에서 “아가씨를 제대로 느끼려면 영화를 한 번 더 볼 것을 권한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무렇게나 잡탕이 아니라 식민지 조선, 나아가 근대에 도입된 풍경은 무엇일지에 대해 시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미술과 의상을 추구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가수 자말라 반러시아 노래로 유로비전 송 우승

“나는 평화를 원한다” 수상소감 밝혀



우크라이나 가수 자말라가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로비전 송콘테스트'에서 '1944'란 곡으로 우승한 후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여성가수 자말라가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폐막한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스틸린 치하 크립반도의 인종청소 만행을 비판한 노래 '1944'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국적은 우크라이나이지만 지난 2014년 러시아가 합병한 크림반도의 타타르족 출신인 자말라는 반러시아 메시지가 담긴 '1944'로 이번 대회 초반부터 정치적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자말라는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한 첫 크림반도 타타르족 출신 가수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자말라는 '1944'에 대해 스틸린의 명령에 따라 고향 크림반도를 떠나 강제이주당했

던 25만명의 타타르족 중 한 명이었던 증조할머니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밝혔다. 또 러시아인들에 의해 자신의 집에서 내몰려

가축처럼 기차칸에 강제로 태워져 낯선 땅으로 가야했던 타타르족 조상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로 '1944'를 설명했

다. BBC는 '1944'가 본선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는 했지만 경합을 벌였던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지레프와 호주 국적의 한국가수 임다미의 곡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한 것은 예상을 깨는 놀라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임다미는 14일 본선에서 수천명의 관객과 약 2억명의 시청자 앞에서 참가곡 '사운드 오브 사이렌스' (Sound of Silence)를 열창해 2위를 차지했다.

우승 트로피를 가슴에 안은 자말라는 감격에 차 “나는 정말로 평화를 원하며, 모두가 사랑하길 원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자말라는 결선에 앞서 영국 가디언과 가진 인터뷰에서 '1944'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간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물론 이 노래는 2014년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며 “이 두 연도는 내 삶에 매우 큰 슬픔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

지소연 폴타임 활약 첼시, FA컵 2연패 좌절

한국 여자축구의 간판 지소연(25·첼시 레이디스)이 2016 여자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결승전에서 풀타임 활약했으나 팀은 준우승에 그쳤다.

첼시 레이디스는 14일 오후 10시(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결승전에서 아스날에 0-1로 패했다. 앞서 지소연은 FA컵과 인연이 깊었다.

지난해 이 대회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팀의 창단 첫 우승을 이끌었고 지난 3월 열린 16강전에서는 시즌 첫 골을 터뜨렸다. 8강 경기에서는 헤트트릭을 신고했고 4강전에서도 프리킥 동점골을 뽑아내며 팀의 결승행을 견인했다.

아날도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 우승컵을 노렸다. 첼시는 이날 전반 18분 아스날의 맨 카터에게 선제골을 허용해 기세를 내렸다. 맨 카터는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꺾고 들어와 갑작스런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전반을 마친 첼시는 후반에도 좀처럼 득점 찬스를 만들지 못했다. 아스날의 거센 전방 압박에 고전했다.

지소연은 아래로 내려와 허리전에 힘을 더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후반 34분에는 아크서를 정면까지 치고 들어가 오른쪽 중거리대를 때렸으나 상대 수비벽에 걸려 아쉬움을 삼켰다. 첼시는 경기 막판 총공세를 폈으나 아스날의 수비벽을 넘지 못했다.

/김민근기자

오승환, 다저스전 1+닝 2K 퍼펙트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2경기 만에 출전해 무실점 퍼펙트 피칭으로 호투했다.

오승환은 1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7회말 마운드에 올라 1+닝 무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으로 활약했다.

투구수는 21개였고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94마일(약 150km)에 달했다. 평균자책점은 종전 1.47에서 1.37로 낮았다.

팀이 1-5로 뒤진 7회말 2사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오승환은 투심패스트볼을 앞세워 저스틴 터너를 5구 승부 끝에 중견수 뜯공으로 처리했다.

8회에는 선두 타자 에드ريان 곤살레스에게 9구째 시속 87마일(약 140km) 슬라이더로 1루수 앞 땅볼을 유도했다.

이어 아스카니 그랜달을 상대로 시속 88마일(약 138km) 슬라이더로 헛스윙 삼진을 이끌어냈고, 작 피더슨을 공 3개로 삼진 아웃시켰다. 세인트루이스는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제레미 헤즐베이커의 투런포로 추격했지만 3-5로 패했다.

/김민근기자

KBO 퓨처스리그 월요일 야간경기 편성 생중계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오는 16일부터 '먼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을 신설, 주중 화~목요일 퓨처스리그(2군) 경기 중 일부를 월요일 야간경기로 편성하고 SPOTV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15일 밝혔다.

KBO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 경기 중 일부도 SPOTV 플러스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6시 서산구장에서 벌어지는 화성 히어로즈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를 시작으로 6월27일까지 총 6경기가 먼데이 나이트 베이스볼로 편성돼 생중계된다. 특히 이날 30일 연고도시 외 지역 야구 팬들을 위해 춘천구장에서 한화 이글스와 고양 다이노스(NC 다이노스 퓨처스팀)의 경기가 개최된다. 춘천에서 야구 경기가 열리는 것은 2011년 7월 퓨처스리그 경기가 열린 이후 5년만이다. 기존에 편성된 퓨처스리그 토요일 경기 중 6월 4일 두산-화성(화성 베이스볼파크), 11일 화성-SK(강화퓨처스파크), 18일 SK-두산(이천 베이스파크) 등 3경기는 오후 1시부터 SPOTV 플러스를 통해 생중계된다.

/김민근 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